7월 19일(월) / 수 19-21

▶ 내용요약 : 19장에는 일곱 지파 중 시므온, 스불론, 잇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그리고는 자기들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나눠주었다. 20장에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도피성 6곳이 지정되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했다. 한편 21장에는 레위 사람의 성읍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에게 성읍을 나눠주어야 했고, 이를 통해 레위 지파는 도피성을 포함하여 48개의 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 질문 : 도피성은 어떤 지파에게 속하였나? (21장)
▶ 생각하기 : 하나님께서는 부지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이를 통해 피의 복수를 막으실 뿐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소중한 존재다.

7월 20일(화) / 삿 10-12

▶ 내용요약 : 사사기 10장에는 사사 돌라, 야일의 생애에 대한 짧은 기사에 이어 사사 입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며 또 다시 죄를 범하고 있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한편 11장에서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당시 입다는 자신의 집 문에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그의 하나 뿐인 딸이 자신을 영접하러 나왔다. 결국 입다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12장에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몰려와서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고, 입다는 에브라임과 싸워서 사만 이천 명을 죽이고 승리했다.
▶ 질문 : 입다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크게 패한 사람들은? (12장)
▶ 생각하기 : 입다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서원을 했다가 자신의 하나뿐인 딸을 잃고 말았다. 실제로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그의 서원이 잘못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말을 주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자.

7월 21일(수) / 삼상 22-25

▶ 내용요약 : 사무엘상 22장에서는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친 다윗에게 약 사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다. 한편 23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그일라 주민을 보호해 주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였고, 이에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 엔게디 요새로 피했다. 이후 24장에서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추격하다가 다윗이 있는 굴에 우연히 들어갔다. 그때 다윗은 단번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울은 다윗과 맹세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이후 어리석고 불량한 사람이었던 나발이 죽고, 그의 아내였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 질문 :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의 수는? (22장)
▶ 생각하기 :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마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과 같이, 인간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것이다. 사람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신뢰하는 신앙인이 되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7월 22일(목) / 삼상 26-28

▶ 내용요약 :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은 또 다시 다윗을 추격했다. 그때 다윗은 조용히 사울의 장막에 침투하여 들어갔는데, 부하들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했다. 이번에도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살려주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후 27장에서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피했고, 사울 왕도 그런 다윗을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얻고 시글락에 거주하게 되었다. 28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기스 왕은 다윗 역시도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블레셋 군대로 인해 다급해진 사울 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자신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을 듣고는 크게 낙담했다.
▶ 질문 :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던 나라는? (27장)
▶ 생각하기 :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사울의 태도는 크게 달랐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급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섭리를 인정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고, 조급할 때마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구하자. 그리고 조급할수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자.

7월 23일(금) / 삼상 29-31

▶ 내용요약 : 사무엘상 29장에는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아기스 왕에게 다윗의 참전을 강하게 반대했고, 결국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신의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30장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성읍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성읍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에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여 진멸하였다. 이때 다윗은 끝까지 함께 추격하지 못한 모든 병사들에게도 분깃을 동일하게 분배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리품의 일부를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다. 한편 31장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목숨을 잃고 말았다.
▶ 질문 : 다윗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30장)
▶ 생각하기 : 만약 다윗이 성과에 따라 병사들을 차별하여 대우했다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과시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참전했던 모든 병사들에게 똑같은 대우를 했다. 이를 통해 다윗은 당장의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는 자신으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왕이 되게 만들었다.

7월 24일(토) / 삼하 1-3

▶ 내용요약 :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진영으로부터 와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렸다. 그는 부상이 심했던 사울 왕의 요청을 받고 자신이 직접 그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처형했으며, 백성들과 함께 크게 슬퍼하였다. 2장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통치하게 되었다. 한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리면서 다윗과 자주 전쟁을 하였다. 한편 3장에서는 이스보셋과 갈등을 겪던 아브넬이 다윗 편으로 돌아섰는데, 요압 장군이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브넬을 살해하였다. 이번에도 다윗은 크게 슬퍼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온 이스라엘에 나타냈다.
▶ 질문 :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을 통치한 기간은? (2장)
▶ 생각하기 : 이스보셋은 사람을 잃었지만,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격적인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의 인격은 아름다운 향기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복음 전도자가 되려면, 함께 하고 싶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비인격적인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7월 25일(일) / 삼하 4-6

▶ 내용요약 : 사무엘하 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다가 레갑과 바아나에 의해 살해당했다. 레갑과 바아나는 다윗에게 인정을 받을까 하여 그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갔다. 그러나 다윗은 두 사람을 처형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다. 이후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아와 언약을 맺고 그를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점점 더 강성해졌다. 이에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한편 6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오는 과정에서 소들이 뛸 때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던 웃사가 죽고 말았다. 이에 다윗은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벧에돔의 집에 두었다. 이후 하나님께서 오벧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메어 들였고, 이때 다윗은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 질문 :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낸 두로의 왕은? (5장)
▶ 생각하기 :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에 들어왔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춤을 추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를 비난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었다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였던 것이다. 우리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구하자.